

전일동향

전일대비 9.70원 하락한 1,421.30원에 마감

1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9.70원 하락한 1,421.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90원 하락한 1,429.1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약달러 흐름에 연동해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에 환율은 추가 하락하며, 1,421.3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0.8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29.10	1429.10	1419.20	1421.30	1424.40
	엔화	942.38	943.53	938.43	940.83	-
	유로화	1660.82	1661.39	1650.05	1655.3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07	-5.48	-11.58	-21.99
	결제환율(수입)	-0.83	-4.58	-9.76	-18.5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한-미 무역협상 기대감에...1,420원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15)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21.30) 대비 0.35원 상승한 1,419.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임박 및 약달러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10월 말 APEC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역합의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인식에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미국 경제활동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프랑스 르코르뇌 총리는 16일 내각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연금 개혁 중단을 제안했다. 조기총선 위험 및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유로화 강세를 시현했다. 영국 재무장관은 증세와 지출 삭감을 모두 검토 중이라 밝혔다. 정부 재정 우려 완화에 파운드화도 강세를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주요 통화 강세에 약세를 보이며, 0.39 하락한 98.67을 기록했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약달러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증시 외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환율 하락의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경계감 및 수입업체 등의 추격매수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15.40 ~ 1425.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631.2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35원 ↑
	■ 美 다우지수 : 46253.31, -17.15p(-0.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0.5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62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